

‘만만한 112’... 영암 79세 할머니 5년간 7000번 허위신고

과대한 처벌에 악의적 신고 잇따라 경찰력 낭비

경찰의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침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112 허위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도 허위 신고로 인해 자칫 긴급한 치안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쉽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영암경찰은 26일, 112 종합상황실 등에 수천 번이 넘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강모(여·7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 간 1425차례에 걸쳐 피해가 없는데도, “집에 도둑이 들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며 112 종합상황실과 경찰서 수사과 등으로 전화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강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횟수만 39차례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112 종합상황실 신고

광주·전남 올 589건 접수

처벌은 13건에 그쳐

민사상 손해배상 마련해야

전화 기록이 1년 단위로 보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씨 허위 신고 횟수는 지난 2008년 이후 5년 간 7000차례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강씨는 허위 신고 뿐 아니라 수차례 출동한 횟수만 39차례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112 종합상황실 신고

다. 강씨가 지난 2009년 광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아들이 숨진 뒤부터 잦은 신고를 해온 사연과 나이가 많은 지역 주민인 점을 감안, 처벌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여태껏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해왔다.

올 들어 지난 7월 31일까지 전남지방경찰청에 접수된 112 허위 신고 건수는 531건, 하지만 허위 신고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6월 말까지 12건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그나마 지난 2011년 372건, 2012년 550건의 허위 신고

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지 않았다.

전남 지역의 지난 한해 112 허위 신고 건수가 550건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112 허위 신고 건수는 1000건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력 낭비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도 올 해 112 허위 신고가 58건에 이르지만 형사 처벌은 1건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광주지방경찰청도 올 해만 무려 2440건의 허위 장난 전화를 한 이른바 ‘XX 옥쟁

이’를 입건했을 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112 허위 신고가 자칫 위급한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력 낭비에 따른 대응 방점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112 허위 신고에 따른 경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진행중인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기준도 조속히 마련,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4원침 (9026)



‘뇌물 의혹’ 목포시 사무관 영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6일 업무에 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목포시 사무관 김모(59)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시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부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 업체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업체 등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등곳길 여중생 학교 통학버스에 치여 숨져

등곳길 10대 여중생이 학교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다.

26일 오전 7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중앙동 S아파트 앞 도로에서 A(14·S 중학교 2년)양이 B(50)씨가 몰던 45인승 학교 통학버스에 치였다. A양은 머리에 큰 충격을 입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양은 이날 사고 현장 인근에서 학

생들을 태우고 출발하던 버스를 타기 위해 급하게 도로를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혹시 뒤늦게 뛰어오는 학생들이 있나 버스 출입문 방향 사이드 미러를 보다가 건너편에서 뛰어온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운전자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필리핀 가는 광주시민의 구호품 26일 오전 광주시청 광장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조호권 광주시회의장,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력키산업 관계자들이 ‘필리핀 태풍피해 돕기 출성식’을 갖고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필리핀으로 광주시민의 정성이 담긴 1억원 규모의 구호물품을 보내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산구 잘못된 건축허가 추가 확인... 경찰 수사 착수

광주시 광산구의 허술한 건축 행정 사례(광주일보 11월 26일 7면)가 말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도 허가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나섰다.

26일 광산구 장덕동 일대 단독주택

건축 허가와 관련, 해당 마을 주민들이 구청의 잘못된 건축허가로 피해를 입은 추가 사례를 제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산경찰도 관련 사실이 알려진 뒤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허가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선 상태다. /최승렬기자 srchoi@

천주교 광주정평위 “내년 1월부터 시국미사”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명백한 책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가 내년 1월부터 국정원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시국 미사를 재개한다. 정평위는 지난 10월 한 달간 시국 미사를 진행했다.

정평위는 2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인권평화재단에서 정기회의를 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기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정평위 이영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

다”며 “다만 성직자는 정치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말하는 것뿐이며, 박창신 신부님도 어른으로서 한 말씀하신 것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한편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국정원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시국 미사를 매주 목요일 광주 북동성당에서 열었다. 광주대교구가 정기적으로 시국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구속자들의 구명과 석방을 위한 월요미사 이후 33년 만이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책 출친 공무원 40만원 벌금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오창민 판사는 26일 중고지법에서 수차례 책을 출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광주의 한 구청공무원 이모(여·37)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40만원을 공탁했으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했고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도서 160권을 출친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기기자 chadod@

검찰, 박창신 신부 수사 착수

‘국보법 위반’ 고발장 접수

검찰이 시국 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지검 군산지청은 박 신부가 강론하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한 보수단체는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내며 “박 신부가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에서 한 발언은 북한을 두둔하고 일정한 목적의식을 지닌 계획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

는 “박 신부의 발언은 일시적 망언 수준을 넘어서는 명백한 현실적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라며 “이에 국가보안법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사건을 공안전담팀 사에게 배당했다”면서 “다만, 다른 보수단체들도 대검찰청에 여러 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대검 등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 신부는 지난 22일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봉헌하며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연합뉴스

흔계만 하는 직장상사 차에 불질러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지 않고 흔계만 한다는 이유로 직장상사의 승용차에 불을 낸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2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40)씨는 지난 16일 밤 11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A식당 앞에 주차된 직장상사 김모(41)씨의 모닝승용차에 불을 질러 1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이씨는 부서 회의를 가던 중 김씨가 자신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흔계만 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A식당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을 통해 이씨를 검거. /이종형기자 galee@

국내개발 | 국내생산 | 특허 제 10-1171252호

NEW soriQ 소리큐 음성증폭기 S20

제품 모델명 : S20, S22, ST33

✓TV시청할 때
✓강의를 들을 때
✓핸드폰 통화할 때
✓대화 · 상담할 때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소리큐 홍보대사 송해선성님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14-4 전남대학교병원 건너편, 본죽 2층

소리큐 광주 호남지사 | 062)227-1700

이탈리안 뷔페 **아이엘리시아**

80여가지의 다양한 이탈리안 메뉴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맞게 드실 수 있는 프리미엄 이탈리안 뷔페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룸반비)

구분	영업시간	성인(18세이상)	취학이민(13~17세)	미취학이민(12세이하)
평일	11:30~22:00	15,500원	9,000원	6,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19,500원	12,000원	8,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점 YONAMJA

매콤한 요양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콩골레 Yongsolle ₩10,800	베이컨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크랜베리 디아블로 폴로 스테이크 Cranberry diablo polo steak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style crispy chicken steak ₩10,800	블루베리 덴버포크 스테이크 Blueberry Denver pork steak ₩10,8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